

▣ 1월 구역기도회 순서 ▣

(기도회는 구역장이 인도합니다. / 모든 구역 공통)

◆ 성호경

1. 시작성가

(성가 하나를 택하여 1~2절을 함께 찬양한 후, 구역장이 자유기도로 기도회를 연다.)

2.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눔(새로운 가족 소개 및 환영)

3. 복음 나누기(연중 제3주일 복음 - 마태 4,12-23)

1단계 : 초대 기도를 바친 후 함께 '구역기도회 기도'를 바친다.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다 함께 구역기도회 기도를 바칩시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장을 펴주십시오.”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읽고,
다시 성경본문을 읽는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읽어주십시오.”

“어느 분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성경을 읽는 동안 다른 분들은 각자 앞에 놓인 그림을 보아주십시오.”

4단계 : 그림을 통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성경과 그림을 통해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5단계 : 성경과 그림을 통해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성경과 그림을 통해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눕시다.”

※ 나누기가 끝난 후 해당되는 “복음의 가르치심” (자료이용)을 읽는다.

6단계 :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이어서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4. 마침성가

적당한 성가를 택하여 함께 부른다.

◆ 성호경

성가가 끝나면 '주보성인 호칭기도'를 바치고 성호경으로 마무리한다.

구역기도회(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구역기도회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I. 복음의 가르침(마태 4,12-23)

제가 사는 곳에 있는 자유공원에는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원 위에서 내려다보면 인천항과 월미도의 불빛 사이로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붉은 불빛들이 바다에 비쳐져서 아름답습니다. 그 풍경 안으로 부터 저 아득한 1845년 어느 날의 장면이 배어 나옵니다.

이곳의 옛 지명인 제물포는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품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중국 땅으로 떠난 곳이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흐른 어느 날엔 아름다운 이 나라에 가장 매서웠던 박해의 한파가 몰아쳤고, 이곳 제물진두에서 천주교인 9명이 참수되어 효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저녁, 그 장면을 품고 있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신앙 선조들의 넋이 우리 동네를 휘감는 듯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신 분들을 만나고 나서 눈을 돌려 도시 쪽을 바라봅니다. 이번엔 빨간 십자가 불빛들이 즐비한 뽕죽탑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알고 찬양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하니 약간 묘한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가르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이처럼 많은데 왜 이 세상은 이리 어지러울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옆에 끼고 교회로 성당으로 뽕뽕 언 손을 호호 불며 줄을 잇습니다.

배움이란 깨우침 혹은 깨침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앞서 깨달음에 이르러 선을 실천한 이들을 따르는 것이니, 배움은 바로 선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선을 실천하기 위해서 따릅니다. 고전에 보면 최고의 선은 남에게 좋은 것을 베푸는 단계를 넘어서 남이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도록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선을 우리가 깨치고 익혀서 세상에 베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몸짓이셨습니다. 우리가 몸인 하느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분의 몸짓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베푸신 선은 하느님의 몸짓이셨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몸인 예수님에 대한 눈에 보이는 몸짓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몸짓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김학선(아우구스티노) 신부/청소년 사목국(청년부) 부국장

II. 복음의 가르침

정말로 기쁜가?

슈퍼마켓을 털다가 잡힌 강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먼저 “흥기를 무장하고 슈퍼마켓을 털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털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느냐?” 는 질문에, 약 95%의 강도가 종업원이 눈을 맞추며 인사할 때 도저히 양심상 그들을 위협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웃는 얼굴을 보고 강도짓을 할 의도가 사라진 것이다.

반면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인까지 저지른 경우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에, 대다수 강도들이 유사한 답변을 했다. 바로 손님인 자신을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을 때였다는 것이다.

줄저 <바보 Zone>에 소개된 이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의 교회 생활을 관통하고 있다. “어느 종교를 선택할까” 하고 여러 종교를 기웃거리는 비신자들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인자가 바로 ‘미소’ 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깨우쳐 주기 때문이다.

고맙게도 그리스도교는 마르지 않는 미소의 원천을 내재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의 정수는 기쁜 소식, Good News인 것이다!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기쁜 소식은 실제로 우리가 입을 좌악 벌리고 웃게 해주는 소식을 가리킨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룬 데에서 들을 수 없는 금시초문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쁜 소식에 대한 믿음이다. 필자가 이해하기로 내용면에서 기쁜 소식에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다.

첫째, 율법을 엄격히 따르자면 본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공로로 몽땅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현금의 기성 종교들이 하나같이 ‘상선별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강생구속’의 구원경륜은 ‘복음 중의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랴!

둘째, “해야 한다!” 일색인 구약의 10계명이 신약에서는 ‘협조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의 차원으로 고양되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가히 신바람 신앙이라 자칭한들 조금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언어로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표정과 삶으로 증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뜬금없이 물을 줄 알아야 한다.

“정말로 기쁜가?”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루카 4,18-19).

이 선포야 말로 2000년 교회 공동체 정체성의 알파요 오메가가 아닐까.

차동엽(로베르토) 신부/미래사목연구소 소장